1회 충전으로 800km 무공해 질주… 현대차, 미래를 달리다

제네바 국제 모터쇼 현장속으로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7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팔렉스포(Geneva Palexpo)'에서 열린 2017 제네바 국제 모터쇼에서 수소전기차 기술력이 대거 집약된 'FE 수소전기차 콘셉트(FE Fuel Cell Concept)'와 유럽 전략 차종 i30의 첫 번째 파생차 'i30 왜건'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자동차는 제네바 모터쇼에서 지난해 출시한 신형 i30 5도어 모델에 적재 공간을 넓혀 기능성을 높인 'i30 왜건'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제네바(스위스) | 원성열 기자



2017 제네바 모터쇼에서 양웅철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담당 부회장이 신형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FE 수소전기차 콘셉트'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베일 벗은 'FE 수소전기차 콘셉트'
내년 양산될 차세대 신기술 집약체
유럽 눈높이 맞춘 'i30 왜건'도 공개

● 'FE 수소전기차 콘셉트', 항속거리 800㎞의 무공해 차

현대자동차 'FE 수소전기차 콘셉트'는 1회 충전으로 800km 이상의 항속거리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돼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를 대폭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기존 투싼 수소전기차(현지명 ix35 Fuel Cell) 대비 연료전지시스템의 중량 20% 저감, 시스템 운영 효율 10% 증대를 목표로 개발 중인 4세대 연료전지시스템이 적용됐다. 아직은 콘셉트카지만 이 신기술은 내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차세대 수소전기차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양웅철 부회장은 "이번에 공개한 'FE 수소전기차 콘셉트'는 현대자동차가 주도적으로 수소전기차 기술을 선도해 고객을 위한 깨끗하고 효율적인 미래 모빌리티를 제공하고, 궁극의 친환경 기술로 일컬어지는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수소 사회 구현에 한 단계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i30 왜건', 유럽 감성의 i30 패밀리 첫 파생차

'i30 왜건'은 디자인부터 주행 테스트까지 차량의 전 개발 과정이 유럽에서 진행된 진정한 유럽 감성의 차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유럽 사람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동급 최고의 적재 공간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전장 4585mm, 전폭 1795mm, 전고 1465mm의 차체 크기를 갖췄고, 트렁크 용량은 602L이며, 뒷좌석 폴딩 시 1650L의 공간이 확보된다.

첨단 기능도 대거 적용됐다. 'i30 왜건'에는 차량 혹은 보행자와 충돌이 예상되면 차량을 자동으로 제동시키는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 운전자의 피로도가 높을 때 클러스터 팝업 메시지와 경보음으로 휴식을 유도하는 '부주의 운전 경보 시스템(DAA)',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스마트 후측방 경보 시스템(BSD)',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LKAS)' 등의 안전 기능들이 대거 탑재됐다.

동력 성능과 연비 경쟁력을 강화한 140마력(ps)의 '가솔린 1.4 터보', 120마력(ps)의 '가솔린 1.0 터보'와, '디젤 1.6 터보'(110마력(ps)과 136마력(ps) 두 가지로 운영) 3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네바(스위스)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쌍용자동차가 2017 제네바 모터쇼에서 7인승 SUV 콘셉트카 XAVL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정통 오프로더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클래식하면서도 진보적인 디자인과 인테리어를 통해 쌍용자동차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
제네바(스위스) | 원성열 기자

SUV 콘셉트카 XAVL 쌍용차 미래성장동력

7인승 전좌석 독립시트…공간활용 극대화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가 2017 제네바모터쇼에서 전략모델인 콘셉트카 XAVL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XAVL은 역사와 전통을 지닌 클래식 코란도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시킨 자동차다. 클래식한 SUV 디자인을 직관적이고 남성적으로 표현했다. 7인승 모델인데 실내 공간은 전 좌석을 독립시트로 구성하고 넓은 적재공간을 확보해 편의성을 높였다. 티볼리로 부활한 쌍용자동차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전략 모델이다. 쌍용자동차는 향후 XAVL과 같이 정통 오프로더 디자인을 가미한 라인업을 차례로 선보일 계획이다.

디자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XAVL은 힘차게 비상하는 새의 날개를 형상화한 숄더윙 디자인을 통해 쌍용자동차 고유의 디자인 정체성을 계승하고 있다.

포그램프는 클래식 코란도의 상징적 요소인 방향지시등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강조된 리어 범퍼 역시 SUV 특유의 강인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며, 카본으로 제작된 블랙 루프를 통해 개성 있는 스타일을 완성했다.

인테리어는 편안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강조했다. 10.25인치 풀 LCD 클러스터와 9.2인치 AV 모니터를 탑재하는 등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동되는 5개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진보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다.

제네바(스위스) | 원성열 기자

천천히 걷자, 봄바람 머금은 연홍도에서는



성큼 다가온 봄기운 속에 마을 골목길을 거닐면서 '슬로우 투어'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고흥 연홍도 전경. 오밀조밀 모여있는 집들의 선명한 지붕색과 푸른 하늘, 다도해 섬에서 볼 수 있는 부드러운 해안 곡선이 어우러져 그림같은 풍경을 만들고 있다.
고흥 | 김재범 기자

봄 가득한 힐링투어…고흥을 가다

여행

고흥은 섬의 고장이다. 푸른 남해 바다를 아기자기 수놓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품에 안은 이곳에는 24개의 유인도를 포함해 230개의 섬이 있다. 거금도, 나로도, 소록도부터 아담한 크기의 연홍도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섬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매력이 있다. 요즘 고흥은 화사한 꽃내음과 함께 찾아온 봄소식이 한창이다. 동백, 매화가 3월 들어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했고, 바다 물빛도 화창한 봄햇살을 받으면서 쪽빛이 한결 짙어졌다. 겨우내 움추렸던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새로운 활기를 느끼는 힐링투어를 생각한다면 고흥을 첫 후보지로 꼽아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

환한 미소로 발길 붙잡는 연홍도 벽화
둘러보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다도해

팔영산 편백나무 숲길과 능가사 동백
하얗게 물들이는 매화꽃 고흥의 봄잔치

● 보석같은 섬에서 느낀 슬로우 투어, 연홍도

볼 것 많은 고흥에서 연홍도는 숨겨진 작은 보석같은 섬이다. 말 모양을 닮은 면적 0.55㎢의 작은 섬으로 50여 가구가 산다. 녹동항에서 금당도행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거금도 서쪽 끝 신양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배로 불과 3분 거리여서 신양선착장에서 보면 손에 잡힐 듯이 가깝다. 선착장에 들어서면 거대한 백색 소라고둥을 비롯해 포구 곳곳을 장식한 다양한 미술품과 벽화가 눈에 들어온다. 하얀 벽에 그려진 때론 정겹고, 때론 미소를 살짝 짓게하는 다양한 벽화를 보며 느긋하게 마을 골목길을 거닐다 보면 "힐링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끼게 된다. 금당도가 바로 옆에 있어 파노라마처럼 장쾌하게 펼쳐진 다도해의 절경 금당적벽을 코앞에서 원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연홍도 나들이의 덤이다. 폐교를 활용한 전국 유일의 섬마을 미술관 '연홍미술관'도 빼놓지 말자.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어 현재 리모델링 중인데, 4월7일 '섬 여는 날' 행사 때 재개관할 예정이다.

● 몽돌해변서 '멍 때려기' 해볼까, 거금도

고흥군에서 가장 큰 섬으로 원래 제주도, 울릉도에 이어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중 세 번째로 컸다. 하지만 2011년 거금대교가 완공되면서 이제 차량으로 갈 수 있다. 섬 둘레에 조성된 해안도로를 따라 가는 드라이브 코스가 이곳 여행의 백미다. 해안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그림같은 어촌마을 오천항부터 갯바위 낚시터 등의 명소가 이어지고, 바다 쪽으로는 오밀조밀한 다도해 섬들의 풍경이 시시각각 다른 모습으로 눈에 들어온다.

특히 오천 몽돌해변은 고흥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이다. 어른 상반신보다 큰 거대한 몽돌바위부터 아기 손보다 작은 작은 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몽돌이 해변을 장식하고 있다. 해변 분위기도 호젓하고, 파도도 잔잔해 몽돌 바위에 앉아 따스한 봄볕을 받으며 요즘 유행하는 '멍 때리기'를 하는 것도 괜찮다.

● 마음이 맑아지는 아기사슴 성당, 소록도

소록도는 죽기 전 꼭 가야 할 국내 여행지로 꼽히는 곳이다. 4.4㎢의 작은 섬이지만 울창한 송림과 백사장이 아름다운 소록도 해수욕장, 일제 강점기 한센병 환자들이 가꾼 것으로 알려진 중앙공원 등의 볼거리가 있다. 국도 27호선을 이용해 소록대교를 거쳐 섬 주차장에 도착하면 도보로 국립소록도병원과 중앙공원까지 관람할 수 있다. 숙박이 금지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다.

주차장에서 10분 정도 올라가면 다소곳한 자태의 아기사슴 소록도 성당이 있다. 1번지 성당(관사성당)과 2번지 성당(병사성당)이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지은 병사성당은 등록문화재 659호에 올라 있다. 관사성당 뒤 정원에서 녹동항을 내려다보는 경치가 일품이다.

● 고흥의 랜드마크, 팔영산과 능가사

남해의 해변과 섬만 둘러본다면 고흥의 매력을 반만 발견한 것이다. 팔영산은 고흥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곳이다. 8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팔영산이라 이름이 붙었는데, 높이는 609m로 높지 않지만, 산세가 수려하고 제법 험하다. 정상에서 다도해를 바라보는 경치도 멋지지만, 산자락에 있는 유서 깊은 사찰 능가사 대웅전 앞에서 팔영봉을 올려다보는 풍광도 못지않다. 정상으로 가는 길에는 피톤치트 성분이 높은 편백나무 숲이 416ha에 걸쳐 조성돼 있다. 30~40년생 아름드리 편백나무들로 10km 정도의 숲길은 산림치유공간으로 인기가 높다.

능가사는 신라 눌지왕때 창건, 1500여년의 역사를 가진 고찰이다. 보물1307호인 대웅전을 비롯해 목조사천왕상, 범종, 사적비, 불상 등이 대표적인 문화재다. 사찰 앞마당에 큰 동백나무와 벚나무가 있는데, 요즘 동백이 꽃망울을 터트리며 방문객을 맞고 있다.

●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 잔치, 인학마을

고흥에서 봄꽃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명소이다. 매실을 재배하기 위해 가꾼 매화나무들이 산비탈에서 일제히 화사한 꽃을 피우고 있다. 3월 초 방문했을 당시 절반 정도 개화를 했는데, 3월 중순이면 산중턱을 하얗게 물들이는 매화꽃 잔치를 만날 수 있다. 인근에 커피사관학교가 있어 오가는 길에 들려 바리스타 체험과 함께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도 있다.

고흥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롯데호텔서울 페닌슐라, 미슐랭 1스타 셰프 초청 디너



롯데호텔서울 페닌슐라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이탈리의 모던 퀴진을 대표하는 미슐랭 1스타 셰프 우고 알치아티(사진)를 초청해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우고 알치아티 셰프는 미식의 고장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피에몬테 출신으로 2003년 가업인 레스토랑 '귀도'를 이어 받아 미슐랭 1스타를 획득했다. 이탈리아 슬로우 푸드와 로컬 푸드 운동의 선구자로 2015년 밀라노 푸드 엑스포 특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국내산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해 자신의 요리 철학을 선보인다. 모던 이탈리안 퀴진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알바산 송로버섯 요리를 시작으로 치킨 라비올리, 리조또, 피에몬테 와인으로 만든 특제 소스로 풍미를 더한 한우 안심구이 등의 메뉴를 맛볼 수 있다. 24일에는 최고급 와인 6종을 곁들인 갈라 디너도 진행한다.
김재범 기자

한화리조트 해운대 티볼리, 요트학교 패키지 출시

한화리조트 해운대 티볼리는 봄을 맞아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요트학교' 패키지를 출시했다. 4인 기준 객실 1실과 조식, 딩기요트 체험으로 구성했다. 1박2일 패키지는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론과 범장(돛 올리기) 교육을 받고,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양실습을 진행한다. 2박3일 패키지는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크루저 요트 체험 후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한다. 패키지는 최대 20인까지 이용 가능하며 수트 대여비는 별도다. 수료증과 상급레벨 교육자격을 받을 수 있다. 두 패키지 모두 3월부터 6월, 9월부터 10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홍콩 오션파크 야간개장 미식 페스티벌



홍콩 오션파크가 오픈 40주년을 맞아 4월17일까지 야간개장 미식 페스티벌 '칠아웃@더 사우스'를 실시한다. '칠아웃@더 사우스'(사진)는 오후 5시 이후 워터프론트에서 진행되는 야간 개장 행사이다. '사케에 관한 모든 것', '팝&록 비어 페스트', '최고의 진미' 등 세 가지 스페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케에 관한 모든 것'에서는 일본 최상급 사케로 유명한 '주욘다이 14대'부터 일본과 대만의 고급 브랜드까지 프리미엄 사케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맥주와 음악 팬을 위한 '팝&록 비어 페스트'에서는 맥스, 나인 드래곤스, 문젠, 영 마스터 에일 등 홍콩 로컬 및 세계의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다. 수퍼 모멘트, 디어 제인, 제이슨 챈 등 홍콩 유명 가수 및 밴드들이 공연을 펼친다. 이밖에 '최고의 진미' 에서는 미슐랭 셰프의 요리를 맛보고 요리 시연 및 와인 페어링 클래스 등의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뉴스디자인 | 이수진 기자